

상해박물관 《山西博物院藏古代壁畫藝術展》

김연미*

상해박물관에서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산서박물관에서 가져온 고분 벽화를 전시하는 특별전인 《山西博物院藏古代壁畫藝術展》이 열렸다. 상해박물관 1층의 제1 전시실을 가득 채운 이 특별전은 산서성의 벽화들을 대규모로 빌려와 보다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람객들이 중국 고분벽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고분 벽화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운반 및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중국 고미술 복원기술의 향상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전시였다.

본 전시에는 산서박물관 소장품 중 엄선된 北朝와 宋·金·元의 12기 고분의 벽화들이 출품되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열린 고대벽화 특별전 중 가장 규모가 큰 전시 중 하나라고 하며, 전시품 중에는 이번에 최초로 대중에 공개된 벽화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내용 면에서도 수준이 높았다. 선정된 고분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 고분의 벽화 일괄을 모두 가져와 전시하여 벽화들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대략적인 무덤의 구조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자료의 공개와 함께, 중국 고분 벽화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1979년 산서성 태원시에서 발굴되었던 北齊시기 누예묘(婁睿墓)의 〈鞍馬出行圖〉벽화도 출품되었다. 〈鞍馬出行圖〉는 중국 미술사 텍스트북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중국회화사에서 중요한 작품이나, 그 뛰어난 문화적 가치로 인해 2002년 해외출국금지 유물로 선정되어 중국 바깥에서는 보기가 힘든 작품이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 전시된 이 벽화는 힘찬 동세의 표현과 자연스러운 인물 묘사가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권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은 하이라이트는 전시장 내부에 실물 크기로 재현된 산서성 朔州 水泉梁村의 벽화묘였다. 朔州水泉梁壁畫墓라고 불리는 이 고분은 北齊 후

* 이화여자대학교

기 벽화묘로 2008년 발굴되었는데, 벽화는 십여 부분으로 나누어져 산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번 상해 특별전은 이 대형 벽화묘의 通道와 墓室 등의 내부구조를 실물 크기로 재현하고 그 내부에 실제 무덤에서 떼어온 벽화를 설치했다. 이 무덤의 벽화 중 일부는 미국 전시에 출품된 적이 있으나,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전체 벽화가 한꺼번에 출품된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이 전시실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마치 천오백년 전의 무덤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벽화를 천정과 벽면 등 무덤의 원래 위치에 놓여진 상태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일반 관람객과 학자들 모두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전시 기획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대규모의 벽화를 멀리 떨어진 타지로 옮겨와 재설치하는 것은 문화재의 훼손 위험성이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상해박물관은 이러한 작업과정을 촬영하여 이 작업의 주요책임자였던 산서박물관의 후오바오치양(霍寶強) 부주임의 설명을 곁들인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 벽화들을 중국 북부에 위치한 산서성으로부터 온도와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해로 옮겨와서 전시하는 것은 두 박물관의 긴밀한 협력과 보존전문팀의 섬세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전시 기간 중에도 벽화의 보호를 위해, 朔州水泉梁壁畫墓를 재구성한 특별갤러리에는 매일 대기 번호를 나누어 주어 제한된 숫자의 관람객만 입장을 허용하였다.

상해박물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전시(網上展覽)도 이번 특별전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높이고 전시내용을 더 다채롭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단순히 특별전의 전시실을 가상현실로 복제하여 전시를 가지 못한 관람객이 인터넷을 통해 전시를 볼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전시가 실제 전시의 내용을 상호보완해 주는 내용을 담도록 구성된 점이 훌륭하다. 이 특별전과 연계 기획된 인터넷전시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산서성 주요 고분의 위치와 벽화에 대한 소개, 2) 세 가지 무덤의 내부를 가상현실로 재현 3) 전시된 벽화를 각 무덤별, 시대별, 주제별로 골라서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 4) 벽화의 발굴과 보존처리를 담은 동영상과 보존처리를 담당자들에 대한 소개가 주요 내용이다. 특별전이 막을 내린 후에도 이 인터넷전시는 계속되고 있어서, 고분벽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웹주소를 남긴다.

http://www.shanghai-museum.net/resource/museum_files/show_files//20180301114418736/index.html